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1

, 서론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강의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서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짐 스피겔입니다. 저는 철학과 종교 교수이며 기독교 윤리에 대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철학을 가르쳤고 테일러 대학교에서 27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저는 현재 인디애나폴리스 신학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와 학문적 관심사는 주로 종교 철학과 윤리 분야에 있지만, 저는 미학, 철학사, 정신 철학 및 기타 분야에서도 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윤리와 관련된 중요한 철학 이론에 의해 알려진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덕적 문제를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처방적 연구 분야로, 무엇이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역사와 과학과 같은 여러 분야는 무엇이 사실인지를 연구합니다. 그것들은 서술적 연구 분야입니다.

윤리는 사물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양한 맥락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는 규범적 분야입니다. 윤리는 또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거나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학이나 스포츠를 공부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목에 관심이 있고, 이런 과목들은 중요하지만, 전기공학이나 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살고,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 도덕적 문제와 윤리적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연구할 때, 방금 언급한 몇 가지와 같은 특정 이론적 개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의란 무엇일까요? 공정성이란 무엇일까요? 미덕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모두 이론적 개념이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명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한 실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으며, 우리는 우리 시대의 더 논란이 많고 분열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든, 공적으로든, 또는 둘 다에서든 말입니다. 낙태, 안락사, 전쟁, 마약 합법화, 성적 도덕성 등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니 철학과 신학의 역사에서 다양한 윤리적 전통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할 다양한 도덕적 관점을 분류하거나 분류하기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 방식은 의무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보통 주로 규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칸트의 윤리와 그가 신적 명령 이론과 기독교 신학 전통에서 범주적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적 명령, 즉 황금률, 십계명, 십계명,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더 의무론적인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적론적 윤리와 윤리적 차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적론적 윤리는 목적이나 목표와 목적을 강조하고, 공리주의적 윤리 전통은 더 목적론적이며, 덕 윤리는 인간의 텔로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개발해야 할 다양한 성격적 특성의 관점에서 인간 설계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회 계약 윤리와 같이 의무론의 요소와 목적론 및 자연법 윤리를 결합한 여러 가지 혼합된 접근 방식,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는 기독교 윤리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통입니다.

기독교인과 윤리에 대해 말하자면, 기독교인은 왜 윤리를 공부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쉽게 답할 수 있고, 그 답은 기독교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도덕성, 즉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것은 도덕적 또는 윤리적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올바른 삶에 대한 강조점이 매우 많고, 이를 다루는 구절의 일부만 있습니다. 잠언 15장 9절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 가증하나, 의를 추구하는 자는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미가 6:8에서 우리는, 그가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 자비, 겸손은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 미덕 또는 가치이며,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러하며, 그것들은 도덕적 자질입니다. 셋째,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에게 있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도 열려 있지만,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고, 또 다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칭찬하는 다른 구절들이 말 그대로 수백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와 의로움을 강조하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개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란 무엇인가?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형이상학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바로 데려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특정한 도덕적 개념과 용어를 분석합니다.

낙태, 안락사, 전쟁, 사형, 동물에 대한 처우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정의롭고 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살펴볼 모든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입니다. 적어도 공적 의미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온갖 종류의 문제가 있는 시민 사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와 더 개인적인 방식으로 씨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윤리와 방법론에 대한 연구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윤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것은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논쟁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도덕적 분석을 할 때 철학적 이론과 원칙을 어느 정도 참고하고, 사용하고, 배치해야 할까요? 제가 취할 접근 방식은, 제가 아는 모든 기독교 도덕 학자나 윤리학자의 접근 방식인데, 철학적 이론화를 신학적 탐구와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철학과 신학의 그런 종류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듯이, 경전에 접근할 때, 그리고 삶의 나머지 부분에 접근할 때 철학적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정말로 철학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철학 이론과 원리를 식별, 표현, 분석 및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철학적 주장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신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 주장만 듣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대중 앞에서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우리의 주장과 아이디어와 입장이 사회의 다른 곳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그것을 옹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Taylor University에서 가르치고 전국의 학교와 경쟁하는 윤리 볼 팀이라고 불리는 도덕 문제 토론 팀을 지도하면서 철학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루는 많은 문제에 대해 확실히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다원주의적인 상황에 그냥 들어가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의 장과 구절을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철학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원주의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철학적 주장, 찬반, 그리고 우리가 지지하는 견해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두 단계 접근 방식을 취해 주요 도덕 이론과 철학적 개념에 대한 일종의 검토와 평가로 시작하여 공리주의와 칸트 윤리, 사회 계약 윤리, 미덕 윤리와 같은 이론을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전통과 윤리, 신적 명령 이론, 자연법 윤리를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이러한 이론적 개념을 특정 도덕적 문제에 적용합니다.

주요 도덕 이론과 원칙을 살펴보면서, 철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신학적 전통도 포함하여 각 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강조하겠습니다. 각 이론에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덕 이론과 원칙에 대해 생각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주의적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주요 철학적 전통과 윤리, 또는 적어도 많은 주요 철학적 전통과 윤리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덕 이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그 절충주의적 모델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주요 도덕적 문제를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의 양쪽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신학적 주장을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이슈에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과 신학적 주장을 고려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 이슈의 양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고, 여러분이 우리의 토론을 즐기고 많은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 서론입니다.